



박찬호

# KIA 박찬호, 후반기 질주 위해 ‘잠시 멈춤’



KIA 타이거즈의 박찬호가 후반기 질주를 위해 잠시 멈춘다.

KIA는 12일 LG 트윈스와의 경기에서 앞서 내야수 박찬호를 엔트리에서 말소했다.

목에 담 증세가 심해 올스타 브레이크를 앞두고 낙담하게 쉬어가기로 한 것이다.

박찬호는 올 시즌 팀 81경기 중 70경기에 출전해 261타수 70안타, 타율 0.268을 기록하고 있다. 2개의 홈런도 날리면서 29타점을 올렸고, 17개의 도루도 성공했다.

최근 팀의 톱타자로 서서 부지런한 활약을 했던 박찬호는 지난 4월에도 부상으로 엔트리에서 빠진 적이 있다.

당시에는 수비 도중 오른쪽 햄스트링 부상을 입어 4월 22일 엔트리에서 말소됐다가 5월 3일 키움

목에 담 증세 ... LG전서 빠져

내야수 최정용·포수 신범수 등록

전을 통해서 그라운드로 복귀했다.

이번에는 큰 부상은 아닌, 휴식 차원의 의미도 더한 엔트리 말소다.

KIA는 전반기 내내 크고 작은 부상으로 고전했다.

가장 먼저 개막 이틀 만인 4월 4일 외국인 투수 선 놀린이 왼 팔꿈치에 공을 맞아 타박상으로 잠시 자리를 비웠다.

이어 김호영이 4월 13일 오른쪽 내복사근 파열로 엔트리에서 빠졌고, 이를 뒤에는 고종욱이 오른쪽 허벅지 근육 파열로 재활군이 됐다.

또 박찬호가 오른쪽 허벅지 통증으로 10일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4월 28일에는 로니가 왼

허벅지 임파선염으로 전열에서 이탈했다.

앞구리 근육부상으로 캠프에서 중도 하차했던 임기영이 로니의 부상에 맞춰 복귀하고도 선발 완전체는 구성하지 못했다.

5월 21일 로니가 돌아왔지만, 5월 25일 놀린이 왼 종아리 근육 파열로 긴 재활에 돌입했다.

6월에는 로니가 팔꿈치 염증으로 한 턴 쉬어가는 등 큰 부상 없이 넘어갔지만 7월 부상이 다시 KIA의 발목을 잡았다.

KIA의 타격을 이끌었던 소크라테스가 SSG 김광현의 공에 얼굴을 맞으면서 코뼈 골절 부상을 당했고, 7월 3일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이어 9일에는 박동원이 왼 발목 염좌로 전반기를 조기 마감했다.

특히 외국인 투수들의 부상·부진으로 전전긍긍했던 KIA는 결국 전력을 재정비해 올스타브레이크 이후 본격적인 순위 싸움을 벌이겠다는 계산이다.

토마스 파노니가 새로 힘을 보태게 됐고, 놀린도

후반기에 맞춰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

선발 완전체를 바탕으로 후반기 질주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KIA는 유격수 자리에서 체력이 부담 많은 박찬호를 굳이 무리해서 전반기 마지막 시리즈에 투입하지 않기로 했다.

올스타브레이크 기간 줄부상 속 긴장감 많은 전반기를 보낸 선수단 체력 회복에도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KIA는 14일 LG와의 전반기 최종전을 끝낸 뒤 18일까지 휴가를 보낼 예정이다. 19·20일 훈련을 재개하는 KIA는 21일 주말 사직시리즈를 위해 원정길에 오르게 된다.

한편 박찬호가 빠진 자리에는 내야수 최정용이 등록됐다.

또 KIA는 지난 10일 한화전 등판을 끝으로 전반기 일정을 마친 투수 한승혁을 대신해 포수 신범수를 등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토트넘 홋스퍼 손흥민과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쿠팡플레이 시리즈 1차전 팀 K리그-토트넘 사전 기자회견에서 '찰락 세리머니'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 150회 디오픈 내일 개막 타이거 우즈 “우승 도전”

임성재·이경훈·김주형 등 출전



타이거 우즈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디오픈(총상금 1400만 달러)이 14일부터 나흘간 '골프의 발상지'로 불리는 영국스코틀랜드 파이프주의 세인트 앤드루스 골프 링크스에서 열린다.

브리티시오픈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리는 이 대회는 1860년 창설돼 올해로 150회째를 맞는다.

역사적인 150회 대회를 맞아 올해 대회는 '골프의 발상지', '골프의 고향'으로 불리는 세인트앤드루스 골프 링크스 올드코스에서 열린다.

올해 대회의 가장 큰 관심은 역시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7·미국)다.

우즈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불과 19시간 사이에 36개 홀을 돌며 연습하는 등 우승에 대한 열망을 숨기지 않았다.

우즈는 이곳에서 열린 2000년, 2005년 디오픈에서 우승했고 2010년에는 공동 23위, 2015년 컷 탈락했다.

우즈가 지난해 교통사고 이후 첫 우승을 세인트 앤드루스에서 일궈낸다면, 2019년 마스터스 우승 때의 감동 못지않은 드라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우승자 폴린 모리카와, 세계 1위이자 올해 마스터스 우승자 스코티 셰플러, US오픈 챔피언 매슈 피츠패트릭(잉글랜드) 등이 우승 후보로 거론된다.

한국 선수로는 임성재(24), 이경훈(31), 김시우(27), 김주형(20), 김민규(21), 조민규(34) 등이 출전하고 교포 선수 케빈 나, 김찬, 김시환(이상 미국), 이민우(호주)도 나온다.

김주형은 11일 끝난 스코틀랜드오픈에서 마지막 날 17번 홀까지 공동 1위를 달리다 단독 3위를 차지한 상승세가 돋보인다.

케빈 나와 PGA 투어에 떠나 LIV 시리즈로 옮긴 선수다.

이번 대회 우승 상금은 250만 달러(약 32억 5000만원)인데 LIV 시리즈 개인전 우승 상금 400만 달러보다 작다.

대회장인 세인트앤드루스 올드코스는 링크스 코스의 특성상 해안에 위치해 바람 등 날씨 변수가 크다.

/연합뉴스

# 콘테 감독 “손흥민은 월드클래스 맞습니다”

토트넘-K리그 올스타

오늘 오후 8시 결전

“손흥민이요? 월드클래스 맞습니다. 제가 만난 가장 뛰어난 선수 중 하나입니다.”

안토니오 콘테 토트넘 홋스퍼 감독이 ‘손흥민 월드클래스 논란(?)’에 중지부를 찍었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23골을 넣어 무함마드 살라

(리버풀)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공동 득점왕에 올랐다. 그런데도 여전히 손흥민이 ‘월드클래스’ 인지를 두고 논란 아닌 논란이 일고 있다.

진원지는 그의 아버지 손흥정 손추구아카데미 감독이다. 그는 공식 석상에서 늘 ‘손흥민은 월드클래스가 아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취지로 말한다.

한국 축구에서 이제 ‘손흥민이 월드클래스인가?’ 하는 질문은, 모두가 답을 알면서도 다시 한번 서로에게 물으며, 손흥민을 가졌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즐거운 말장난’이다.

토트넘과 팀 K리그의 ‘쿠팡플레이 시리즈’ 친선 경기를 하루 앞두고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도 같은 질문이 어김없이 나왔다.

손흥민이 월드클래스인지를 두고 한국에서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콘테 감독은 뚜렷하게 답했다.

그는 “손흥민은 왼발, 오른발을 다 쓰는 환상적인 기량을 갖췄으면서 팀을 위해 헌신할 줄도 안다. 그는 세계 어느 팀에서나 뛸 수 있다. 손흥민은

월드클래스다. 내가 본 가장 뛰어난 선수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이 손흥민을 과소평가한다. 기량보다 저평가된 부분이 있다”면서 “나와 우리 팀은 손흥민과 함께해 운이 아주 좋다. 그는 환상적인 능력을 갖췄으며, 언제나 웃는, 세계 최고의 선수다”라고 말했다.

한편 토트넘과 팀 K리그의 친선 경기는 13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된다.

/연합뉴스

## 정호연·엄지성 골 ... 광주FC, 서울이랜드와 2-2 무승부

‘광탄소년단’이 귀한 승점을 합작했다.

광주FC가 지난 11일 목동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서울이랜드와의 K리그2 26라운드 원정경기에서 금호고 출신의 정호연(22)과 엄지성(20)의 골로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앞선 부천과의 25라운드에서 2-1 승리를 거뒀던 광주의 연속 도전은 실패로 끝났지만 승리 같은 극적인 무승부가 만들어졌다.

이 경기 전까지 서울이랜드에 8승 2무로 강세를 보였던 광주지만 상대 외국인 선수 까테나시의 활

약에 진땀을 흘렸다.

전반 25분 광주가 손 쓸 틈도 없이 서울이랜드의 골이 만들어졌다.

먼 거리에서 까테나시가 가슴으로 공을 트래킹한 뒤 바로 타닝 슈팅으로 연결했다. 까테나시의 발을 떠난 공은 그대로 빠른 속도로 광주 골대를 뚫었다.

전반 33분에도 까테나시의 집중력이 돋보였다. 광주 하승운의 중거리 슈팅이 윤보상의 부상으로 교체 투입된 골키퍼 김형근에 막혔고, 바로 서울이랜드의 공격이 전개됐다.

광주 골키퍼 김경민이 김정수와 마주한 채 공을 막아냈지만, 옆으로 흐른 공을 놓치지 않고 까테나시가 슈팅으로 연결했다.

수비가 흔들리면서 두 번째 골을 허용한 광주는 0-2에서 후반전을 맞았다.

후반 7분 광주가 반격에 나섰다. 주인공은 금호고 출신의 ‘루키’ 정호연이었다.

페널티박스에서 상대 수비진에 둘러싸여 있던 산드로가 헤이스에게 백패스를 했다. 공을 받은 헤이스는 오른쪽 측면으로 공을 보냈다.

정호연이 공을 잡아 오른발 슈팅을 날리면서 서울이랜드 골대를 갈랐다.

단국대를 거쳐 올 시즌 프로에 뛰어난 정호연이 22경기 만에 기록한 프로 데뷔골이었다.

신인의 데뷔골로 분위기를 바꾼 광주는 부진하던 동점골 사냥에 나섰다. 하지만 엄지성의 헤더와 헤이스의 슈팅이 살짝 골대를 벗어나는 등 소득 없이 약속된 90분이 모두 끝났다. 그리고 4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졌고, 광주가 승리를 위해 막판 공세에 나섰다.

페널티박스 안으로 침투하던 이요뜸이 김연수의 팔에 걸려 넘어졌다. 비디오 판독 결과 파울이 선언됐고, 광주의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또 앞서 한 차례 경고 카드를 받은 김연수는 퇴장 조치됐다.

키커로 엄지성이 자리를 잡았다. 엄지성은 골대

왼쪽을 겨냥했고, 방향을 잃은 골키퍼의 손에 공이 맞았다. 하지만 엄지성의 강력한 슈팅은 그대로 골망을 흔들면서 승부가 2-2 원점으로 돌아갔다.

경기가 그대로 마무리되면서 광주는 서울이랜드 전 무패행진을 이어갔다. 또 승점 1점을 보태면서 2위 대전하나시티즌과 승점 10점 차를 만들었다.

광주 이정호 감독은 “나보다 선수들이 더 많이 아쉬울 것 같다. 내가 다독이면서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겠다”며 “전술적으로 변화를 주고, 한 골이 먼저고 수비를 하자고 했다. 골 욕심보다는 우리가 하던 축구를 하자고 했는데 상대 수비의 벽을 더 뚫지 못했다.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에게 고맙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